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Sung Ok Cho, Publisher
M.O. Han, Editor

VOL.8 NO.5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ug 1979



무궁화



이창희 선생님 기념 장학회

큰 뜻 품으시고 미국에 오신후 근 반세기동안 여러면으로 남을 돕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던중 특히 학생들의 일에 관심이 크셨던 이창희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장례직후에 어려운 학생들 수학에 도움되는 일을 마련 하려고 이창희 선생님 기념 장학회를 결성 하였습니다. 미망인 김간난 여사께서 이 일을 아시고 고인 장례때 자우들이 보내드린 부의를 전부 기탁해 주셔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학금 적립과 그 운영의 일을 하기로 하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고 면세 특전을 얻는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고인의 뜻을 이어 어려운 학생들을 얼마간이라도 돕게 되도록 많은 조언과 조력을 기쳐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8월 15일

전계상, 신호범, 안성진, 오희곤, 서두수.

사무소 소재 :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CHANG HEI LEE
MEMORIAL SCHOLARSHIP

수재민을 돕시다!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본국 수재민들에게 보낼 수재의연금(·외연금, 외류품 등)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모금운동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보내시는 외연금을 각 접수처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에서는 접수되는 수재의연금을 매주 한번씩 본국으로 우송할 예정입니다. 고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접수 기간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처 : 그랜드식품. 아름마마켓.

동양식품.

오대양.

유나이브여행사.

중앙식품.

한국가게.

기탁 본의사항은 씨애틀 한인회 (전화: 767-7934, 이나 767-7935)

이해진 부녀부장 (전화: 932-7442)

으로 연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8. 15 경축사.

다음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광복 34돌 기념 경축사입니다.



경축사 -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조국 광복 서른네를 맞이하여, 나는 내외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경축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나는 거듭된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헤쳐며 그동안 국가건설에 헌신 해온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광복의 참뜻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에 있 다면 우리의 선택은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함으로 세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다시한번 굳게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특히 최근의 국내의 정세는, 북한 공산 집단의 현저한 군비증강, 남북한, 미 십당 국 고위 대표회의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 반응, 그리고 세계적인 유가 앙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악화등 만만치 않은 상황을 생각할때 우리는 새로운 결의와 본발로서 오늘 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리켜 보면, 우리 겨레는 조국 광복의 흥분과 환희도 잠시였을뿐 국토 분단의 비극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남침으로 동족상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전쟁복구에 여념이 없던 유엔후보도 무장 공비의 도발이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소용돌이속에서 빈곤과 정치,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던 60년대 초 우리는 본연의 결기하여 짐서 회복과 가난 추방에 착수하였고, 70년대에 들어서는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응로자 국민적 결단으로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단합된 힘과 창조 의 숨겨를 북돋아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보안,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세대가 이룩한 값진 담의 결경인 동시에 내외로 걸친 시련속에서 줄기찬 민족사의 주역이 다시 한번 발현된 한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축적된 힘과 숨겨를 유감없이 발휘 하여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쁨으로 삼취하고 참다운 민족의 광복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할 희망찬 80년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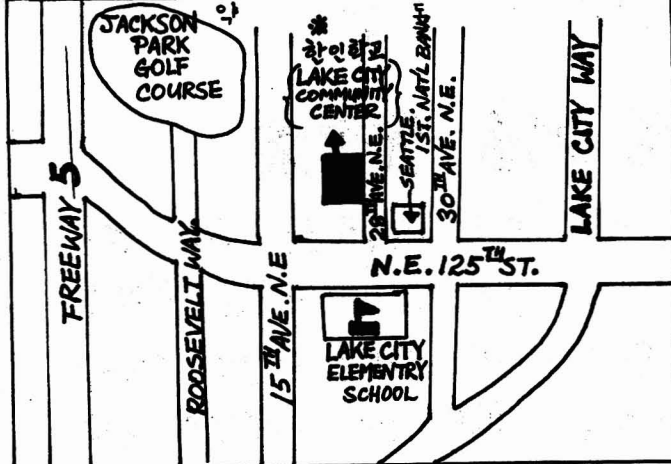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 광복의 그날로부터 한 세대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정세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하여 어엿한 자주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력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개탄스러운 일은 민족과 국토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 문화의 전통을 거역하고 겨레의 번영과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은 태담 무력 적화 의 거역을 버리지 못하고 군비증강에 열안이 되어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휴전선 일대에서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들은 어선으로 외강한 무장 관측선을 남해안 근해에 침투시켜 도발해 온 것을 우리 군경이 추격, 격침한 바 있습니다. 6.25 때 저지른 엄청난 민족적 죄과와 재범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남북 대화 재개를 추구 하는 우리는 금년 초에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재의했고 최근에는 3 당국 최외류 미국과 공동 제의한 바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대미 평화 협정 운운 하면서 단전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25 남침 전쟁을 도발했을 때 공산 집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 압중국을 공격했다는 말인가, 나는 존엄이 그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만약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해진 그들의 기습적 무력 공격으로 처절한 6.25 동란은 일어났고 그후 넘쳐 한 세대에 가까운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남북간에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평화 정착 체제로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할 이 마당에 북한측이 우리와 대화하고 협상 까지 않겠다면,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를 과연 그후의 어느 누구와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 음흉한 저의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산 가족의 재회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인도적 적의에도 남북한 동포의 민생과 번영을 위한 경제교류 적의에도 거부 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화통일 주장하면서 대화는 않겠다면 결국은 무력으로 통일 하겠다는 그들의 저의를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으로 바 역는 불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아무리 통일이 절실한 겨레의 소원이자 해도 우리는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간의 대화를 필요하고 대화를 통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남북 진실자 최담 재의 8 주년에 즈음하여 오랫동안 중단되어온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최담 재회를 북한측이 재의한 것도 대화를 위한 우리의 총정에서 울어 나온 것입니다.

한인학교 개학안내



그 동안 여름방학으로 휴강하였던 한인학교가 오는 9월 8일 (토요일) 개학을 하며 학교장소는 예전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린이들의 모국어교육에 힘을 기울입니다.

주소: LAKE CITY COMMUNITY CENTER
12531 28th AVE. N.E. SEATTLE.



한인학교	이름	주소	주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성의 특기 취미	기타 사항	성별	여
								전화	직업

공지사항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1979년도 제 3회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을 계획 하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음악인의 (작곡분야)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 시상부분: 국악, 양악, 어린이를 위한 음악
나. 대상작품: 1978.11.1-1979.10.31사이의 한국인이 창작한 작품
다. 제출기간: 1979. 5-1979.10.31까지
라. 기발 사항은 시애크를 총영사관 (전화: 682-0132)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애크를 총영사관 개관 이후 고도 사회의 유대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던 남흥우 영사께서 오는 9월 20일자로 임명되어 있는 후쿠오다 시의 총 영사로 발령 이 났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남 영사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할림



시애크를-워싱턴주 한인회 이사회 개최.
1979년도 총회에서 실시될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과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고국의 수재민동기 운동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시애크를-워싱턴주 한인 이사회 가 아택과 같이 개최된다.
개회일시: 1979년 9월 1일 오후 7시.
장소: 로-알 . 록 레스토랑.

감사의 말씀.



지난 8월 에 거쳐 일민 친선축구 경기에서 우리 시애크를 축구선수 단들에게 유니폼값 (\$ 287.54) 을 기부 해주신 김연중 이사 장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1 회 워싱턴주 한인 회장배 장애 도시 대항 축구 대회
 일시: 1979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HARTMOOR PARK

참가팀: 세아클, 마로마, 밴부버, 포르랜드

11시30분 8.15 경축 기념 행사에 이어 거행된 첫경기에서,
 총합로마: 밴부버 —— 마로마 5:0 승리.

1시30분 두번째 경기에서,
 총세아클: 포르랜드 —— 밴부버 2:2 이어 연장전 전후반

과 10분 경기에서 포르랜드 3:2 승리

오후 5시~6시 1시간 복수부 경승전 기행

6시10분 경승전에서

총마로마: 포르랜드 3:0 포르랜드 승리

전반 1:0 후반 2:0 3:0 승리

세아클 축구 선수 명단.

감독: 황성복

선수: 주장은 김용

이강인 광성원 이용범 이규범

최본 최영진 윤택선 최현순

이종현 노경희 윤태진 김종호

정영모 이상 14 명



로버트. 베스캐빌 변호사 세아클에서 새 법률 사무소.

이곳 한국인들의 법률문제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미국인 변호사 로버트 베스캐빌 씨가 7월 1일부터 세아클 다운타운 "파이오니어 스퀘어" 근처에 있는 그의 개인 법률회사에서 새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 4년 동안 브래더튼에서 변호사로 활약 해온 베스캐빌 씨는 대부분 세아클 지역 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베스캐빌 씨는 1966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근무하여 한국에 정착하며 법사립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다. 1973년 워싱턴 대학의 법률학교를 졸업 후 바로 변호사로 활약 해온 베스캐빌 씨는 주로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재산문제, 임대계약, 교통사고 및 가정 문제 등이 많다고 한다. 고향중 법률문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하시면 언제나 상담을 환영한다고 한다. 베스캐빌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350 Grand Central on the Park
 216 First Avenue South
 Seattle, Washington, 98104
 (206) 292-9090
전화

Pioneer Realty

김 현중 부동산에서
(FRANCHYUN CHOONG KIM)
 • 무료 봉사: 값싼 아파트 안전 캐드미크
 • 무료 상담: 정화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취급: • 주택 • 아파트 • 호텔 • 단지
 • 점포 • 기비사업 부자 안내
전화: 774-7828. 774-3839.

인덕동향회.

 이대동향회에서는
 1979. 8.11 (토요일) 오후 1시에 CARKEEK PARK 에서
 피크닉을 가겠습니다. 이대동향회 회원의 연락처는
 전화: 525-4766 (Mrs. 송).

새
 • **사이심리.**
 고향 감색칠 씨는 부동산 및 가족치료 (Family Therapy) 의 전문분야로 이 지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고포동문들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감색칠 씨는 워싱턴주 주립 대학에서 심리 및 정신 치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마치고, 부로터다 주립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주립 대학에서 법학과 행동과학을 공부 하셨습니다. 이용기실 전화는: 776-0800 (세아클) 952-2197 (마로마)

그랜드식품 Branch LYNWOOD
 세아클에서 그랜드식품을 구입 하시는 날 용기씨는 LYNWOOD 에 그랜드식품 Branch 를 오는 9월 15일 개점 할 예정입니다. Grand Food 의 주소는 5405, 96th S.W. LYNWOOD.

고희 안나.
 세아클 한인 안나의 교회에서는 RENTON 에 가리키고 있는 유 재상 목사님을 모시고 미주 모로임 예배를 모시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화: 833-8977
 교회 전화: 833-2604

나는 이 기회에 북한측이 남북 적십자 회담에 돌아오고 남북한 당국 회담이던 3 당국 회담이든 우리의 대화 재개에 용기를 얻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있는 당국 간의 책임있는 대화에 성립되어 먼저 이 땅에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바람이 부는 날까지 바랍시다.

국제조류의 단체도 평화의 열매를 맺는 편에 있을 뿐 아니라, 광범한 국력이 전쟁 위협주의를 분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의 길을 열고야 마겠는지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국론을 하나로 집약하고 유 비 무한하는 자주국방 백세불 건지 하면서 끈질기게 인내로서 자주, 자립, 자외의 국력 배양에 계속 매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상승하고 있는 데도 다시 유가 가격 상승의 외력, 총경은 우리 국민 생활에 박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 산업, 복지 사회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새로운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니며 생각 많은 나라 국민들이 다같이 겪고 있는 시련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국민들과 중소 기업의 고용이 그중 그대에게 으며 정부도 이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년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류 파동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도리어 이를 우리의 방편으로 만든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난날의 고문을 잊지 않고 근면, 기도, 행동의 신명을 생활화하여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책임수용으로 임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힘을 합쳐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어야만 노사가 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되어 앞으로 어떠한 난국도 극복하고 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지력이 생길 것입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경영 합리화와 경영력 강화는 전일도 밝게이며 경제의 체질과 생활의 기질을 단련하여 경제의 안정 기조를 회복하는 발전적 기기가 되어 오�히려 전회외복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겪고 난속에서도 이만큼 국력 신장을 이룩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 정치 풍토의 저해이던 남비의 비늘을, 그리고 국론 분열을 과장이 제거하지 못했다면 또한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나가는 데 포용적인 민주 제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권이 흔들려서 구포만 의지하며 허송세월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국가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 총화와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은 그만큼 서로 배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으로 비록하고 고운이며 오늘과 상상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해준 공동 지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오늘의 상황은 국가 안보면에서나 우리의 경제면에서나 방심을 불러주는 이중, 삼중의 비상한 시국을 우리 모두가 똑바로 인식하고 다져야 할 때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워낙 민족은 이력을 책임수용 그 계보를 반복하는 법입니다. 임시적 경제 변화에 임해, 임우하는 단견은 금물입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과 신념,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단련된 힘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주인은 바로 우리를 자신이 하는 성숙한 자주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으로 역사를 스스로의 책임에 대치하고 혁명에 나가야 합니다. 그 맥만 우리는 오늘의 난국을 다시 극복하여 희망찬 새나라를 자신있게 열 수 있습니다. 자립 경제와 자주 국방의 근본만 바탕이 되고도 산업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 완전 정치 문화를 꽃피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우리 거리의 소임은 뜨겁고 한결같습니다.

광복이던 조국 광복을 외치던 민족 중흥으로 승화시킬 때까지 우리 모두가 줄기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979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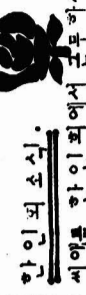
대통령 박정희

알림

유니도어영사와 뉴욕생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시카고 세는 글린 세아클 DEPT. OF HUMAN RESOURCES**의 이사로 위촉을 받고 소수 민족들의 위급한 때에 제한 없이 도움도 돕고 있습니다.

- 1) 특히 위급한 때에서 상황의 외협을 받고 싶다면 필히 연락하십시오.
- 2) 기비 위급한 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처는 1) 집: 941-5161 사무실: 765-2525



한인회 소식.
 세아클 한인회에서 근무 하신 단 남택영 씨가 지난 7월 말에 그 만 두시고 권촌자에서 새로이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남택영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봉사센터가 발족한 이후 조그만 입에서 큰 입까지 고민들의 복지문제에 봉사센터 직원들의 노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그 활약상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지난 한인회보에 알린 바와 같이 고민 건강관리 문제도 우리 봉사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 주변에는 언어 장애도 없고 안정된 생활에서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신 고민들도 많겠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 언어의 장벽과, 저소득, 비보험 가입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고민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인회에서는 CETA 기관과 오랫동안의 접촉 끝에 직원 한사람이 더 보강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봉사센터에서 본인의 주 업무는 현실적으로 고민들의 진로여부를 막진하여 해당 기관에 의뢰,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비가입자들로서 진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고 신규 이민자들의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및 진로를 받을 수 있는 소스를 알려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워싱턴 주정부의 사회복지제도 하에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건강상담 문제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대상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인의 지식과 힘이 자라는 때까지 협조해 용하겠습니다.

한인회 봉사센터 김상순



MacPherson's
REALTORS
People serving people since 1932.

부동산

We're 500 professionals working for you...

In 20 offices all over Puget Sound...

We list and sell more homes than any other Realtor in the Puget Sound area.

For lots of good reasons. MacPherson's tradition of service and success for nearly 50 years has made us the leading name in residential sales in the Pacific Northwest. Complete coverage of the Puget Sound area, and up-to-the-minute information on homes for sale mean the largest selection of new and existing homes available.

치어를 근방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한 여건을 성심으로 보아 드리코저 합니다.

OFF. 525-6300

KEUMCHU (KATHY) HALPIN

RES. 522-8147

MRS. 박금주

편집 후기

이따금 심없이 오는 비가 한인회의 좁은 공간 밖에서 서성거리는 오후, 여름은 무수한 사랑의 행렬로 떠나 보내고 이슬비속에 8월의 외모를 골마치고 보니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다. 좋은 정보,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을 교포의 가정 가정마다 넘치게 못 안겨 주었지만 앞으로의 성원을 바라며서 8월 편집을 마무리 짓는다. 한 명 옥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It is the Association's multi-service center staffed by two full-time workers, one Administrator/Program Director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Trainee, Health Care research Specialist, whose positions are CETA-funded through th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of the State of Washington. Its operating expenses are being met by donations and membership dues. Please note that our Korean Community in general has had a visibility problem, as our people are often grouped and treated as one of the Japanese and Chinese communities for their look-alikeness. Our people are relatively new-comers compared to Japanese and Chinese, and for this reason unemployments and social problems among our people are greater. Thanks to the State's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which made the operation of the Center possible by providing the two CETA positions. In fact, this is the first, major act done by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our community. Many thanks to the Governor 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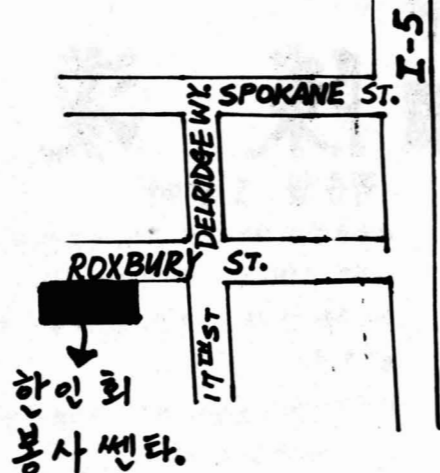
For the Service Center's operation from July 19 1979, the following services have been provided by the Center:

- (1) Job Referral (14)
- (2) Employment Counseling (40)
- (3)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42)
- (4) Finding shelters and apartments (6)
- (5) Domestic problems and counseling (20)
- (6) Referrals of legal services (8)
- (7) General counseling and referrals (38)
- (8) Ride/transportation provided (8)
- (9) Telephone calls and inquiries (10 to 15 a day)

치어를 워싱턴주 한인회.

전화번호: 767-7934, 767-7935

주소 및 위치: 172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SHITE #4)



한인회
봉사센터.

한국 식당 개업 (FOUNTAIN RESTAURANT)

여러분 구미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 맞습니다. 한번 오시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EVERETT시 조용한 숲속에 있습니다. 파킹장은 무한정 넓습니다.



메뉴

- 불고기 백반
- 불갈비 백반
- 육계장
- 냉면
- 비빔밥
- 잡채밥
- 짜장면
- 만두국
- 튀김만두
- 탕수육
- 찌개백반

영업 시간

- 월 ~ 목요일 : 10:00 ~ 8:00
- 금요일 : 10:00 ~ 9:00
- 토요일 : 11:00 ~ 9:00
- 일요일 (공휴일) : 휴업

위치

5번 FWY EVERETT EXIT 192
에서 내려 MUKILTEO 쪽으로
공원 숲속길을 지나 첫신로동
MOBIL 주유소 뒷편
MUKILTEO BLVD 와 OLYMPIC BLVD
216 OLYMPIC BLVD, EVERETT.
WA. 98203
(206) 258 - 3220



그랜드 식품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미래를 지향하는 그랜드 식품점, 나 날이 발전하는 시애틀 코먼 여러분 속에. 저희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맛을 생생히 전해 드릴수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 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하습시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시다."



감사 하습시다
 결비와 불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 합니다."

8512 20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206) 525-8334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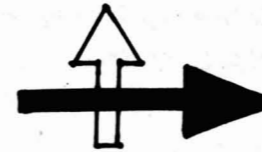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박창식 내과



시애틀 시 브로드웨이 에 박 창식 내과가 개업을 하고서
 고령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심 전화는 : (206) 325-6787
 병원 위치 : 700 BROADWAY - SUITE 100
 SEATTLE, WA. 98122

직업 안내



세이프즈.매.구함.
 EQUITABLE 생명 보험회사에서 세이프즈를 하십분을
 구한답니다. 의료보험등의 혜택이 있으며
 년봉 \$18,000 과 수수료 가 3년동안 지불된다고 함.
 영어에 능숙한 자여 한하며, 자세한 것은
 전화 : 624-8380 (K. Mark Williams)
 주소 : 600 Stewart St., Suite 300
 또 문의하기 바랍니다.

비서 구함.

박창식 내과에서는 여비서 한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심 전화는 (206) 325-6787 .

한인회비 기부금 납부자 명단.

이수호 : \$ 15.00
 손담수 : \$ 50.00
 조재환 : \$ 15.00



일반기부금 납부자.

김고선 : \$ 100.00

친선축구 경기 기부금.

김현중 : \$ 287.54

함좌용 : \$ 10.00

조영수 : \$ 5.00

김홍식 : \$ 5.00

박성수 : \$ 3.00

엄홍보 : \$ 5.00

이미남 : \$ 10.00

박성운 : \$ 5.00

조동기 : \$ 5.00

백동환 : \$ 5.00

전동규 : \$ 5.00

권용삼 : \$ 20.00

임경규 : \$ 3.00

김규남 : \$ 3.00

이석복 : \$ 3.00

남애정 : \$ 3.00

심종석 : \$ 2.00

김택희 : \$ 3.00

강정미 : \$ 2.00

장부관 : \$ 3.00

최인식 : \$ 3.00

권매희 : \$ 3.00

김경백 : \$ 5.00

김수영 : \$ 5.00

윤창영 : \$ 2.00

김수영 : \$ 2.00

김은택 : \$ 2.00

유청남 : \$ 2.00

장부용 : \$ 2.00

허영옥 : \$ 5.00

유걸신 : \$ 3.00

황수철 : \$ 100.00

서광선 : \$ 30.00

中國 陳漢藥房

직수입 도산매

●중공산 보약제, 입접 구비, 중공산 원용, 용담, 개구신
 기마 보약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 맥된 신경통, 고혈압, 양기부족에 특별 처방

●무로진매

●기방에 개신 본들의 전화, 편지문의 환영합니다.

BUS. (604) 255-7033

RBS. (604) 271-0934

461 E. HASTINGS ST. VAN. 진영찬

● 인삼 ● 녹용 ● 용담 ● 한약종상(조제) ● 건강상담



●서울 미성 중국인 2세
 ●서울 학교 학교 (중고졸)
 ●국민 대학 졸업
 ●한약방 20년